

## 사금파리에 대하여

### 매일경제

김유태 기자



중국 난징대학살기념관 출구에서 마주친 여러 빛깔의 종이학. 과거를 사죄하는 의미로 일본의 여러 단체와 학교에서 보냈다. 그러나 난징이란 도시는 여전히 과거의 고통과 동거하는 중이었다. 철회의 마음이 가닿지 못하는 도시가 난징이었다.

고쿄[皇居]의 뜰이 내려다보이는 일본 도쿄 이데미츠[出光]미술관 9층은 바깥의 햇빛과 바람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광범위한 정적이었다. 험한 분위기에도 식지 않는 한류 현장을 취재하러 가벼운 마음으로 떠난 출장길이었다. 써야 할 기사를 데스크에게 보낸 뒤 출국일에 체감하는 현지 분위기는 출장이 대개 그렇듯 다소 여유가 있었다. 카메라 하나만 들고 사흘간 머문 호텔 인근을 산책하려다 잠깐 숨을 고를까 싶어 입장권을 끊고 승강기에 올랐다. 로쿠코요[六古窯]란 제목의 전시회엔 꽤 못생긴 일본 도자기들이 집결한 터였는데 도심 한복판의 미술관은 주

말임을 감안해도 관람객이 상당했다. 그러나 미안한 얘기지만 이국의 800년짜리 질그릇이 건네는 감흥은 별 볼일 없었고, 설렘은 금세 사그라졌다. 조금 더 솔직해 진다면, 10분 전에 낸 입장료 1천 엔조차 아까워 후회하는 마음까지 고개를 들던 참이었다.

실망한 표정으로 대충 둘러보고 나가려다가 출구 근처에 방 하나짜리 작은 별관을 발견하곤 막연한 호기심이 일었다. 독특하게도 완성된 도자기가 아니었다. 전시장에는 조각과 파편만 도열한 채였다. 부서진 사금파리만 모은 이색공간

이랄까. 이동하며 부분이 유실됐거나 출토되며 전체가 아닌 일부만 발굴된 탓이었으리라. 그다지 무소용해 보이는 도편(陶片)까지 전시하는 일본인의 알뜰함이 이 나라의 이질적인 단면처럼 느껴져 기왕 들어온 김에 본관보다 오랜 시간을 머무르기로 했다. 자바에서 출토됐다는 14세기 중국 도자기 옆으로 전북 유천리에서 출토된 고려도자(高麗陶磁) 파편과 충남 계룡산에서 나온 조선왕조도자(朝鮮王朝陶磁) 파편도 운명처럼 놓여 있었다. 빼앗긴 유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분노는 적었으나 실은 그때 느닷없는 몽상에 진입했고, 그래서 결국 이 글을 꼭 써야겠다고 마음을 고쳐먹었다.

어찌 된 일인지 의도치 않게 상황이 겹쳐 올해 초엔 중국에 머물렀다. 보름 넘는 시간 동안 중국 내 독립운동 사적지를 답사하는 4,500km 남짓한 육로 이동 취재였다. 독립운동 기획기사 담당기자로 내정된 나는 출장 이후 두 달간 17페이지를 혼자 써내고선 어떤 정신적 탈진의 후유증을 경험하던 중이었고, 이윽고 왼쪽 허벅지를 휘감는 대상포진 탓에 일주일 병가를 내 쉬기도 했었다. 그러나 육체적인 통증보다도 수시로 병상의 정신을 멍한 상태로 곤두박질치도록 괴롭힌 실체는 중



중국 난징의 리자상위안소유적진열관에서 청동 부조의 흐르는 눈물을 오래 닦았다. 위안부 할머니의 고통을 상징하는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다. 부조 아래엔 흰 수건이 준비돼 있었다.

국 충청에서 만난 그 남자가 분명했다. 과장으로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죄책감을 조금씩 망각하기 시작한 채 5월 초 도쿄로 향한 터였는데, 사금파리 전시관에서 파편을 보고 별안간 인생의 형체가 곧 ‘깨진 도자기’와 같던, 한 남자와의 대화를 회상한 것이었다. 평생 출토되지 못하다 역사의 정면에 섰던 그였다.

환영과 동선을 현재에 복구해 몸으로 체감하며 써야 하는 현지 르포르타주 기사 취재 과정에서 나는 중국에 체류 중인 독립운동가 후손을 뵈 기회를 얻었다. 상하이, 자싱, 하이옌, 항저우, 전장, 난징, 창사, 광저우, 류저우, 치장, 쑤이, 충칭, 시안을 순서대로 가며 알려지지 않은 후손을 굳이 찾아내려 했다. 역사의 뒤편길



이데미츠미술관 출구 인근의 별관에서 마주친 한국산 도자기 파편들. 중국과 한국, 동남아 지역에서 출토된 도자기 파편이 가지런히 전시돼 있었다.

에 누군가가 존재했지만 망각된 채 감춰져 있으리란 불온한 예감 때문이었을까. 중국 대륙에 거주하는 독립운동가 후손 30여 명의 SNS 단독방엔 한국 기자 방문 소식이 조용히 퍼져서, 다행히도 충청의 그에게 인터뷰 승낙을 받아 다소 급작스럽게 만남이 결정됐다. 점심식사를 겸한 인터뷰로 시작했다가 시간대가 맞아 사적지를 함께 돌았고 해 질 무렵엔 마라향이 화끈한 휘귀를 탁자에 놓고 긴 대화를 이었다. 그는 술을 거의 입에 대지 않았으나, 정작 술이 다급했던 건 얘기를 듣는 쪽인 나였다.

“...부친은 상하이 통지의대를 졸업한 의사였소. 미래를 뿌리치고 임정에 합류해 군의처장을 맡았지. 광복 후 귀국했으나 정치적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다

시 난징으로 떠나 병원을 개업했지만 마오쩌둥이 정권을 장악한 뒤였고, 곧 한국 임정 부역자로 낙인찍힌 부친은 반도 이주를 종용받았소. 부친은 그새 척추에 마비가 왔고, 결국 중학교 동기였던 김일성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도와달라고... 1957년 평양에 갔습니다. 저 삶도 그러나 찼나였소. 1958년 연안파 숙청사건을 기점으로 부친은 요양병원에서 사라졌소. 대소변도 못 거르던 양반이었는데 말이요. 큰형이 아버지를 애걸복걸하니 ‘그런 사람 없다, 가라’ 하더라. 가족은 다시 중국행을 택했고 평생 임정 부역자 꼬리표를 달고 살았소. 백범이 사라져 남한행은 어려웠고, 북한에선 반역자의 가족, 중국에선 정치적 반대파의 후손일 뿐인...”

그에게 남겨진 가족은 정신병원행을

선택한 큰형님이 사실상 유일했다. 휴대전화로 월제어에 탄 형의 사진을 들이민 그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군의처장 광파(光波) 유진동(1908~?)의 삼남 유수동이다. 질긴 목숨을 안고 형제는 육십 평생을 걸어왔다. 슬픔을 전시는 기사로 보이기는 싫어 차마 기사엔 담지 못했지만 실은 유 선생 표현대로 그에겐 ‘미쳐버린 형’만 남아 있었다. 그 스스로도 수차례 이렇게 가슴을 치곤 울어버렸다. “나도 미칠 것 같습니다.” 유 선생의 삶을 깨진 도자기로 은유한 건 저 때문이다. 존재의 기억은 있으나 형체가 불완전하고, 이국에서 발견돼 정체성조차 불분명해진, 육화(肉化)된 디아스포라가 울고 있었다. 고통에 가닿을 수 없어 막연한 죄의식을 뜨거운 주사기로 혈관에 주입시켜버린 기분에 시달렸다. 어떤 감염이라 봄이 옳았다. 그는 말했다. “한국은 뭘 했던 말입니까?”

깨진 도자기처럼 흩어진 운명들과의 조우는 중국 현지의 취재과정에서 어려운 경험은 아니었다. 현전하는 디아스포라의 전형이 유 선생이라면 박영심과 김복동이란 이름은 죽음이란 디아스포라 길에서 실종돼버린 아픔이었다. 유 선생을 만나기에 앞서 난징의 리지샹위안소

에선 위안부 고(故) 박영심 할머니가 일본군에게 수모를 당한 ‘19번 방’ 앞에서 오래 침묵했다. 박 할머니 나체(裸體)로 추정되는 사진이 걸려 있었다. 역시, 기사에 쓰지 못했다. 어떤 감정은 명료한 언어로 표현이 어렵고 그저 어떤 말과 글도 무소용일 때가 있다. 박 할머니 방에 들르기 바로 전날 김 할머니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뒤였다. ‘멈추지 않는 눈물(Endless Flow of Tears)’이란 이름의 부조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수건으로 눈물을 오래 닦았다. 수십만 명의 슬픔을 훑으며, 나는 이미 신중한 말을 고르고 있었는지도 몰랐다.

중국 상하이의 와이탄. 야경에도 황금빛으로 불든 중앙 건물은 황포포에 위치한 옛 일본영사관 건물이다. 우리나라의 망명 정부가 숨어들었던 당시에 일본군이 실제로 사용한 건물이다. 지금은 중국 군사시설로 사용 중이라 했다. 일반인 출입은 금지돼 있다. 저 건물을 정면으로 촬영하려 지난 1월 유람선에 올라 때를 기다렸다. 내겐 의미가 깊은 사진이다.



지난 5월, 일본 도쿄의 야스쿠니 신사 전경. 올해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지만 동시에 야스쿠니 신사 150주년이기도 하다. 고작 두 시간 거리인 두 나라 사이의 간극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숙연해졌던 마음과 달리, 전범의 본산지인 일본의 야스쿠니[靖國] 신사는 올해 창립 150주년을 맞아 떠들썩하게 경축하는 분위기가 곳곳을 채우던 참이었다. 이데미츠미술관에 들르기 전날, 기자단의 요청으로 야스쿠니에 잠시 들렀던 터였다. 오후의 신사는 고요했다. ‘御創立百五十年’이라고 쓴 간판이 곳곳에서 휘장과 함께 휘날리고 있었다. 피해자는 고통을 저장해 망각에 저장하지만 가해자는 승리를 기념해 폭력을 정당화하던 중이었다. 3·1운동 및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의열단 창설 100주년, 중국 공산당 창건 70주년의 이면에서 일본 치요다구의 한적한 신사에선 전범을 추모하는 신사의

유구한 정통성이 지층처럼 쌓여가던 중이었는데, 모두가 연결된 사회에서 누구도 고통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이몽에 빠졌고 나는 그 사이에서 목격자가 된다. 늘 소수자를 공동체에서 결여시키는 이 사회에서 말이다.

다시, 5월의 서울로 눈을 돌린다. 그리고 생각한다. 일본 천황[日王]과 가족이 사는 궁성인 고쿄의 봄 나무와 월제어에 올라 과거를 서서히 망각해가던 충청정신병원의 한 남자를, 신사의 기념 휘장 너머로 언뜻 보이는 전범의 분향함과 부친을 찾아 달라며 북한의 요양병원에서 울부짖던 큰형의 오랜 과거를 털어놓고는 우리를 기억해 달라며 울음을 쏟는 유 선생을, 이국에 전시된 도편이 이곳까지 흘러온 수백 년의 세월과 그사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존재가 깨져 나체로 사진을 찍히고 구타에 못 이겨 몸을 내주기도 그 사실을 함구해 살아야 했던 소녀들을, 빙하기의 한일 관계를, 그러나 정치적 긴장과 무관하게 K팝을 사랑한다며 신오쿠보 거리에서 굿즈를 기꺼이 고르던 대학생들.... 분노와 흥분을 끌어버린 정신의 그라운드 제로에서 절망과 상실에 텅 빈 감정을 어떻게 마주 봐야 올바른지를 나는 생각한다.

도처가 악인으로 둘러싸인 시대의 고통을 단번에 해결할 수 없으며 과거가 치유되는 길은 그래서 요원하다고 믿었다. 다만 100쪽을 조금 넘는 책 한 권에서 나는 어떤 실마리를 감지했다. 프랑스 철학자 장 뢰캥 낭시의 책 ‘나를 만지지 마라(Noli me tangere)’를 최근 정독했다. 낭시는 말한다. 진리와의 접촉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진리를 두고 중요한 건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다가서려는 자세다. 그러한가. 진실이 담긴 과거 역시 저 진리라

는 추상명사와 다를 바 없지 않을까. 과거는 현재적 관점에서 한사코 멀어지려는 속성을 지닌다. 어차피 가닿을 수 없단 애기다. 다가서려는 태도만이 위로의 기회를 허락한다. 낭시의 책을 옮긴 정과리 평론가의 문장을 빌리자면, 진리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다가서는 자세는 민주주의 사회의 존재론이자 윤리학이다. 괴로움에 접근하려는 자세, 기억은 저 태도의 다른 이름이다.

딸아이가 어느 날 노란 나비 표식을 들고 있기에 확인해보니 어린이집 봄소풍에서 위안부 '평화의 소녀상'에 걸어줄 표식이라고 했다. 박영심, 김복동 할머니를 생각하며 딸아리와 몇 글자를 남겼다.



우리는 기억하려 인간됨을 쓰고 있는가. 나는 자문케 된다. 자신할 수 없다. 현실이 기억을 덮칠 것이므로, 과거를 추념하는 시대의 분위기도 이제는 인간됨을 쓸 여력을 결국엔 상실하겠지. 그러나 상실에 저항하는 흐름도 분명 사회의 기저에 숨겨져 있기에 나는 세계를 부정해버릴 순 없다. 가령 이런 거다. 어제였다. 어린이집을 다니는 딸아이를 데리고 어린이집 아빠들만 모이는 봄 소풍을 다녀왔다. 경기도 외곽의 옥구공원에 평화의 소녀상이 설치돼 있었다. 아빠들은 삼삼오오 아이들을 이끌고 노란 나비 모양의 명패에 미리 준비한 편지를 써서 달았다. 네 살짜리 딸아이의 왼손을 위안부 소녀상의 오른손에 올리고 셔터를 누르며 나는, 깨쳐버린 도자기를 이어 붙일 순 없어도 부러진 마음은 어찌면 이어 붙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래서 어제보다 조금은 더 윤리적인 인간들의 인기척을 상상해보려 애썼다.

저 인기척에 다가서려는 자세가 가득해진 세계를 또 상상한다. 고통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이 기자라고 믿어왔어도 고통에 다가서는 삶을 얼마나 지향했는지에 대해 고민한다. 나는 그저, 다가서서 보려 할 뿐이다. 펜이 세상을 지배한다는

허울 좋은 위압감 대신 그저 그곳에 다가서려는 발걸음에서 세상은 조금 나은 공간으로 바뀌지는 않을까 하는 기대감은 혼자만의 망상에 불과할까. 아니다. 모두는 연결돼 있다. 디아스포라는 잠시도 멈춘 적이 없다. 현대인의 이산(離散)은 상태가 아니라 흘러가는 동사와 같다. 올해 내게 허락된 모든 풍경은 흐름의 목격자로 동행하라는 내 생의 지엄한 명령 같은 건 아니었을까. 그 명령을 완성하는 건 바로 나다. 그러므로 나는 무슨 주문처럼 말을 윈다. 아주 오래됐지만 전혀 오래되지 않은 한마디처럼 느껴진다. “놀리 메 탄게레(Noli me tangere), 놀리 메 탄게레...”

